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빌립보서 1:12~26; 3:8~14; 4:4~13. 지상에서의 어떠한 보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섬기는 것에 비교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다면, 복음은 역경이 닥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준다. (30~35분)

여러분이 범하지도 않은 죄목으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여러분은 자신이 범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고소를 당해 본적이 있었는가?
- 무고하게 고소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대답을 노트에 적는다. 바울의 상황을 묘사하는 핵심 단어를 찾아보면서 **빌립보서 1장 7, 13, 16절을 읽는다.** 찾은 것을 노트에 열거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로마에 투옥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의 바울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빌립보서 1장 12~26절**을 읽고 또 찾은 것을 첫 번째 목록 옆에 적는다. 두 목록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론한다. 왜 바울이 그와 같이 느꼈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의 신앙이 그토록 강하였던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빌립보서 3장 7~14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 그는 무엇을 얻었는가?
- 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 버리려 하는가?
-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바울이 자신의 역경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해하는 데 다음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구절과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다.

빌립보서 3장 13~14절	나는 겸손하게 되는 법과 주님의 풍성함을 받는 법을 배웠다.
1장 12절	나는 이 고난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3장 10절	나는 모든 상황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또한 엘마서 29:1~6 참조)
1장 19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더 진전될 수 있었다.
4장 11절	이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 수가 있었다
4장 12절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4장 13절	나는 과거의 시련을 잊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한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이러한 원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빌립보서 4장 4~10절**을 읽는다. 당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밀톤 알 헌터 장로의 다음 말씀을 나누는 것을 고려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현대의 한 선지자에게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59:2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현대의 이 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깨끗한 양심으로부터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설 때 오는 평화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66년 10월, 40쪽; 또한 모사이사서 2:15; 4:3; 교리와 성약 135:4 참조)

바울의 모범에 따라 생활할 것을 격려한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시련을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생에서 평화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평화를 얻는 데 장애물이 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을 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사회가 영적인 질병을 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거나 그것에 신경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편의주의나 돈과 재화의 획득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음, 부정직, 폭력,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악에 대항해 오고 있는 몇몇 소수의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그저 아름답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92년 4월, 5쪽; 또는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쪽)

빌립보서

저자 및 대상.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1차 로마 투옥 기간에 빌립보에 있던 교회 회원들에게 적어 보낸 것이다. (빌립보서 1:1, 7, 13, 16 참조; 또한 사도행전 28:14~21 참조)

역사적 배경. 빌립보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동부 마게도냐(북부 그리스)에 있었다. 이 도시는 유럽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도시였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여인과 그 가족이 그곳에서 바울의 최초의 개종자였다. (사도행전 16:9~15 참조)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처음으로 빌립보를 방문하고 약 십 년이 흐른 뒤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바울의 처지를 듣게 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보내는 선물을 지참하게 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머물며 필요에 따라 그를 도와주어야 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갖게 된 에바브로디도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다. (빌립보서 2:25~27 참조) 바울은 서기 60~62년경 빌립보 성도들에게 드리는 감사와 권고로 이 서한을 보냈다.

주제. "이 서한은 우정, 충만한 애정, 확신, 선한 권고, 그리고 선한 격려의 편지이다. 이 서한은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편지이다. ..."

"... 이 서한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감옥에서의 명상과 주님과 교통에 대해 배우게 된다. 우리는 그의 영이 인생의 말년까지 성숙해 가는 가운데 그 인내가 그의 내부에서 완전하게 작용하도록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 (제이 알 덤멜로우 편, 성경 주해서 [1936년], 969쪽)